

카카오, 대리운전서 미용실까지 진출 나서

카카오의 신규 O2O(온오프라인 연계·Online to Offline) 사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교통, 금융, 미용 등 분야도 천차만별이다.

카카오는 쿼서서비스와 배달 등 유통 분야 O2O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원 위 사업자 '벨론'을 1조8700억원에 인수하며 음악·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O2O 사업으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계' 임하기 이용률 감소와 신규 서비스 마케팅 비용 지출 등으로 지난해 실적은 전년 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모은 방대한 이용자를 유료 모델에 접목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O2O 산업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태다. IT업계가 점점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아직 개척분야가 남은 O2O 분야를 노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O2O에 대해 전형적인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카카

신규 O2O사업 줄줄이 진행... 기존 사업자와 공생 관련

오목에 온갖 부가 서비스를 덧붙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화제를 모은 O2O 사업은 '카카오 헤어샵(가칭)'이다. 현재 카카오는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카카오 헤어샵 설명회를 열고 있다. 서비스 시점은 오는 6월이 목표다.

이 서비스는 전용 앱으로 미용실 예약을 하고, 카카오페이로 파마·염색 비용을 결제한 뒤 결제 금액의 10~15%를 카카오가 가져가는 구조로 진행된다.

카카오 헤어샵은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이용자 평점과 리뷰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도 한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는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을 통해 유명 뷰티 업체 '하시스'의 지분 51%를 인수, 자회사로 편입하며 뷰티 O2O 진출을 알렸다.

하시스는 미용실 파부 미용실 네일숍 분야에서 고객 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다. 지난

해 기준 전국 9718개 회원을 갖고 있으며 업계 점유율은 69%다.

카카오와 하시스 관계자는 "뷰티 O2O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유지와 의견 수렴에 집중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교통 분야도 카카오 O2O 사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30일 카카오택시를 선보이며 출시 9개월만에 누적 호출 수 5700만건, 일 호출 수 60만건, 기사 회원 19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시장 반응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리모택시를 비롯한 중소 플랫폼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조 플랫폼 리모택시가 최근 폐업 신고를 했고 조만간 서비스를 접을 예정"이라며 "대기업을 모회사로 둔 경쟁 서비스에 벤처 기업의 입지가 좁

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카카오 드라이버' 상반기 출시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카카오의 O2O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대형 경쟁자 등장을 반대한 데 반해 대리운전자들은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리운전에 진출하면 연간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적 부진에 빠진 카카오의 대표적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하겠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공생이 큰 숙제"라고 전했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관계자는 "카카오가 진출하는 사업과 벤처 기업들의 주 활동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카카오가 카카오톡 성공을 바탕으로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공생, 신규 사업 확장의 정도와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근 기자

지난해 위조지폐 5만원권 가장 많아

지난 한 해 동안 발견된 위조지폐가 3030여장으로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만원권 위조지폐가 2040장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는 3031장으로 전년(3907장) 대비 876장(22.4%) 감소했다. 유종 중인 은행권 100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도 0.7장으로 전년(0.9장)보다 0.2장 줄어들었다.

위폐 발견장수는 2011년 1만53장, 2012년 8628장, 2013년 3588장, 2014년 3907장, 2015년 3031장으로 반짝 증가세를 보인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권종별로는 지난해 전주의 한 금융당에서 1억원 상당의 5만원권 위폐(2012장)가 대량 발견되면서 5만원권 위폐가 2040장으로 가장 많이 발견됐다. 전년보다 631장(44.8%) 늘어난 수치로 전체 위폐의 67.3%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5000원권과 1만원권의 위폐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위폐의 수는 감소했다.

과거 위폐가 많이 발견됐던 5000원권의 경우 임프렛 프린터로 구권을 대량으로 찍어낸 위조범이 지난 2013년 검거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견된 5000원권 위폐는 707장으로 전년 대비 811장(53.4%)이나 감소했다.

1만원권 위폐도 269장으로 전년 대비 661장(71.1%) 감소했고, 1000원권도 15장으로 35장(70%) 줄었다.

지역별로는 금융기관이 발견·신고한 위폐(601)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451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구 60장, 강원 41장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견 주체별로는 한은 394장, 금융기관 601장이었고, 개인은 2036장으로 개인이 더 많았다.

한편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은)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위조지폐 확인법을 알려면 한은 홈페이지(<http://www.hk.or.kr>)의 '화폐-위조방지장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디딤돌 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실 대출금액을 축소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줄어들지 않고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영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때일 처지에 놓였을 때 우선 변

제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은행 입장에서 주택 관련 대출의 리스크로 간주한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음·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호, 단독주택 약 400만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근기자

수입차 1월 판매량 전년보다 감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질주하던 수입차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월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1만6234대로 전년보다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판매량(2만4366대)보다는 33.4%나 감소했다.

수입차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1년 12월(5.0%) 이후 4년여 만

에 처음이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문가는 "1월 수입차 시장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함께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 및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4298대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 1위였던 BMW는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한 2410대 판매에 그쳤다.

김민근기자



해외로

설 연휴를 나흘 앞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1월 차량 구매자에 개소세 인하분 환급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올 1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동차업체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자동차업체들이 국세청에 아직 개소세를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직접 구매자들을 찾아 개소세 인하분을 돌려주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자동차업체 등에 따르면 개소세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을 때 세금을 포함시켜 받은 뒤 추후 국세청에 내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오는 4월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지난해 말 구매분에 대한 개소세는 자동차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고 1월 구매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방침이 발표된 만큼 자동차 업체가 구매자에게 인하분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직 업체별로 정확한 환급절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영업소별로 구매자를 찾아 환급액을 안내하고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